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제811호〉 2002년 9월 2일(월)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iHUFSan
http://www.iHUFSan.com

정간: 1955년 4월 11일 (주) 발행인: 임영민 편집인: 주진 김규진 편집장: 김홍도 인쇄인: 홍운주 신문사 967-4151, 962-7128
학부: 151 (서울) 961-4152 FAX: 961-4183 (영남) 031-330-4112 (서울) 용인대학교 이문동 270 경기도 용인시 오성면 용인리 3-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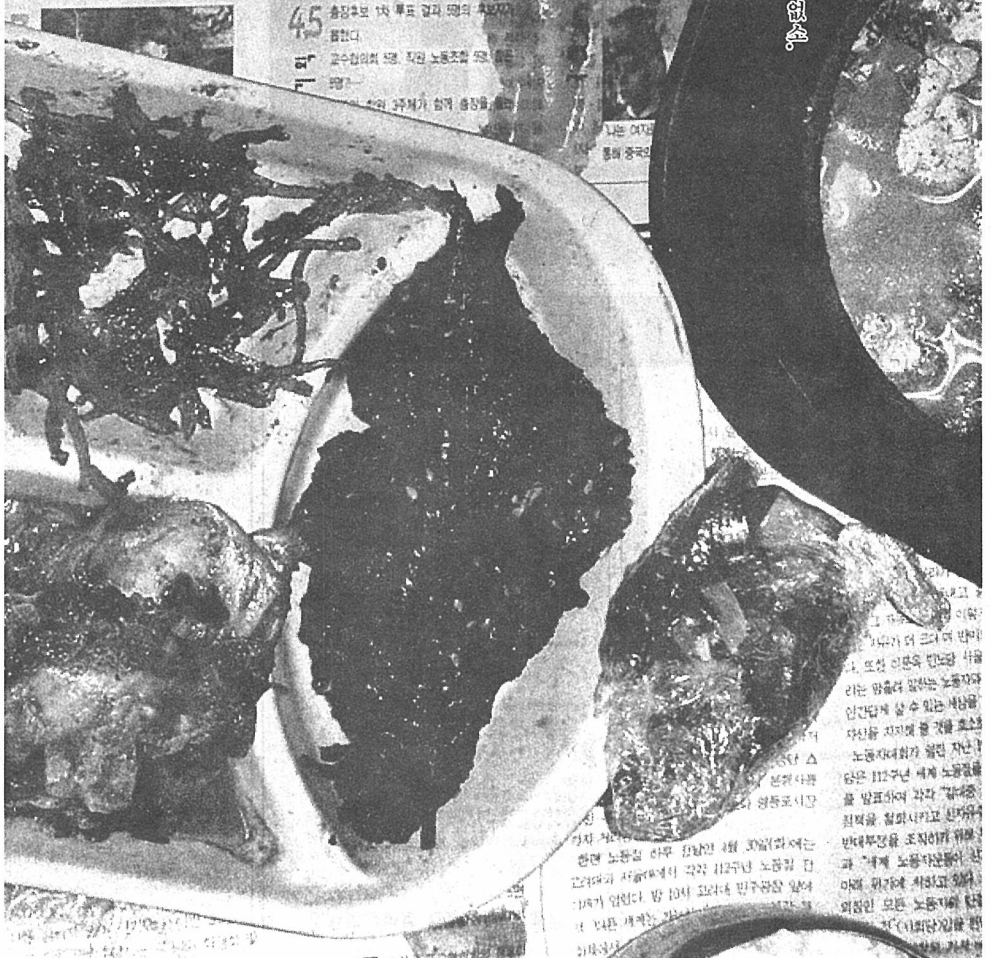


8 신임총장 안병만 특약 인터뷰

신임총장 안병만(右)은 취임식에서 차기 1년 동안 신임총장으로서 맡게 되는 업무의 선례를 통해 신임에게 기대와 격려를 외치고 있다. (사진: 김홍도)

외대학보

TH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WEEKLY



외대학보가 망해가고 있소.
외대학보 기자들의 임의로 차라 말하기 힘들지만 사실이라고.
2002년 9월 2일 현재, 외대학보의 기자수는 4명에 불과하고요.
고작 4명의 학생이 이제 한 학기 동안, 매주 매주 8면의 신문들을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라오.
70·80년대에 넘쳐나던 기자들로 가득 채워졌던 학보가, 기자실을 무색케 하는 데목이 아닐 수 없소.
이것뿐만이 아니오. 이 학보를 들고 있는 그대들.
외대인들에게 외대만은 외대학보라면 논리의 가치가 없다는 권위자명한 사실이라오.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널리 알리오.
외대학보는 그대들에게 외대만은 아니기 위해,
꿈이 없이 구애를 무를 것이라고 말하오.
시대의 흐름에 발맞추어 계속 변화해나가면서,
점어도 외대에서만은 외대학보가 연구에 힘써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하오.
이런 학보는 유행이 아니라 보도록 하시오!



총장 이·취임식을 보도하고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알립니다.



노조 거부당 인터뷰

7월 1일자로 노동조합 거부당이 바뀌었다.
제 10대 거부당 이정철씨는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풍토를 만들겠다는데...
이정철 신임 거부당장을 만나봤다.

안병만 7대 신임총장 인터뷰

현 외대는 최저점... 정상화에 힘쓰겠다

영어 단과대 건설과 14개의 외국어학과를 확장 신설 용인배움터 기숙사 증축이 최우선 과제

제 7대 총장으로 취임한 소감은

한편으로 자긍심을 느끼며 한편으로 신중한 문제해결의 제일 안에 있다는 부담감도 함께 든다.

조규환 전 총장이 실시한 시업에 대해 한마디

조 총장님은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이요, 또한 당시 책임기간은 일을 한만큼 빛이 나지 않는 시기였다. 가장 큰 성과라면 학교를 지금처럼 안정된 상태로 만드셨다는 점이다. 조총장님에 대한 평가는 외대의 역사가 평가해 줄 것이다.

앞으로 총장으로 재직하시며 중점을 둘 사업(계획)은 무엇인가.

우선 재단 사업을 임기 4년간 질질 끌 생각을 없다. 시스템 개혁, 행정 체계, 학사 등 지금 외대는 많은 부분 변화가 필요하다. 얼마 전 서울에서 재단한 지역발전재단도 사실은 외대가 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자곡동, 세곡동으로의 이전 문제이다. 우선 기관웹사이트를 올려야 하지만 그곳의 땅은 외대 발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단과 관련된 세가지(공영화, 기업법, 국립화) 중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데 실현 가능성은

3개 기구의 실현가능성과 외대의 직설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필요하다면 조항도 가능하다. 기본적으로 공영화하며 일부 특별 프로그램에는 기업과 국가가 투자하는 것으로 한다.

우리학교에는 여러 위원회가 있지만 최고 의결기구가 '교수회의'인 개혁에 결국 학생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단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법적으로 '교수회의'가 최고 의결기관이다. 하지만 교수회의까지 의견이 올라 가는데 학생, 교수, 직원 모두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학원 3주제로 구성된 위원회의 의견에 가입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회의'는 올바른 의견에 찬반투표를 하는 것이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재단 정상화에 대한 의견은

또한 이숙경씨, 박승준씨, 김중국씨 등 3개 재단내각 및 헌법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싶다.

외대만의 힘으로 부족한 재단 정상화의 방향으로서는 기본적으로 공영화하고 기업과 국가의 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특정 집단이나 인물이 공익성에 강한 대학을 파괴하지 않는 바를 원칙으로 한다.

민주적인 의사수립을 위해 열린 총장실과 사이버 총장실을 운영한다는 데, 자세한 설명해 주시겠나.

이번 9월부터 한 달에 한번 열린 총장실을 실시할 것이며 이와 함께 사이버 총장실도 같이 운영할 것이다. (사이버 총장실 E-MAIL: changjung@hufs.ac.kr)

대학 철위원회에 대해 '그 동안의 실적과 문제점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그 동안의 실적과 문제점들을 검토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총장이 되지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등록금특별위원회(등록특위) 폐지를 주장했다.

등록특별정은 총장 고유 권한이다. 이는 위임할 수 없다. 대학이란 특성상 등록금은 총장이 책정해야 한다. 과거에 나타난 여러 문제점의 원인으로 총정의 권한이 위임됐기 때문이다.

등록금에 관한 한 결정은 총장이 해야 하며 책임도 총장이 져야 한다. 책정을 하는 단체 대신 등록금 조정위원회(등조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해 학내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제 때로 반영하도록 하겠다. 즉 등조위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다면 등록금이 필요없어 지는 것이다.

영어 단과대 건설과 14개의 외국어학과를 확장, 신설한다는 데 구체적인 계획은?

신설학과와 함께 학사구조개편이 불가피한데 그 대책은

외대의 발전을 위해 영어학부를 확대 개편해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겠다. 이와 함께 타 언어에 대해서도 개편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동북아 학부를 만들어 영어, 중국어를 묶어 풀가치 언어를 모두 구사하는 동북아의 멀티플레이어를 육성할 것이다. 외대에는 언어학과와 비언어학과가 있다. 이는 외대를 이끄는 두 축이다. 만일 공학과 외국어가 만났다고 하자. 그

런 논쟁이다. 기업에서도 자신의 전공을 가면서 외국어에도 능한 그런 인재를 원한다.

또한 외대에 어학이 많이 생기는 것은 외대의 특성을 살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14개 언어학과와 신설은 외대에 부여된 역할이기도 하다. 물론 이같은 외대만의 힘으로 불가능하다. 정부의 지원을 충분히 끌어내야 한다. 14개 언어학과를 세 개 학부로 묶어 신설하겠다. 만일 한과에 한 명의 학생이 있다면 그해 국가적으로 중요한 인물이요, 학사구조 개편안도 실시해야 한다. 교수, 학생이 많이 도와줘야 한다.

용인배움터의 특성화(특목법) 필요성이 절실하다. 용인배움터 특별취임위원회의 구성과 방안은

크게 행정팀, 인사팀, 예산, 독립, 예산 독립의 5단계 방안을 준비중이다.

서울 학생회, 기숙사, 용인 재기숙사, 중앙도서관에 대한 상은?

용인배움터의 기숙사 같은 문제는 기숙사이다. 교육적 측면에서도 기숙사 문제는 중요하다. 시립부터 시작해 많은 수의 외국인을 배워 해 적어도 신입생 전원이 생활 외국어를 배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 그것이 용인의 사명이 걸린 최우선 사업이며 중앙도서관은 그 다음 문제이다. 서울의 학생회와 기숙사 문제도 지금 같은 문제이다. 하지만 서울은 부지 확보 등 어려움이 많다. 본관 건물기 부담으로 다기와 진정중심 사단에 영향을 끼칠수도 있을 것이다.

용인배움터의 고질적인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철노선사업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미 용인지역 전철노선 사업은 용인배움터가 추진 체 수립된 것으로 있는데.

지금 결정된 것 이외의 서울과 하남, 광주, 분당을 잇는 지하철이 예정됐다. 이는 5대 중앙 제일시(96년) 경기도지사(이인제)와 합의된 내용이며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당시 그 계획은 2010년 완공이었다.

외대 캠퍼스(저곡동) 설립의 상은?

그랜드뷰를 푸는 것, 이것이 나의 임무라 생각하며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그곳에 있던 서울 공학이 이전된다고 들었다. 이는 좋은 징조로 생각한다. 학교는 교육사업이므로 정부에서도 허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대학의 대우제'와 같은 구성원간의 획일적인 방안은?

우선 학생들에게 제안하고 싶다. 대통령처럼 구성원들이 서로 어울릴 수 있는 행사를 열어야 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구성원간의 화합은 이미 시작됐다. 3개의 재단 관련 위원회, 1개의 개혁위원회 등 모두 구성원들이 함께 모여 합의를 찾는 기구이다.

공약 중 최우선 조지경상부분을 '최도의 기금지원'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계획인가.

최우선 조지경상부분을 '최도의 기금지원'을 통해 지원한다고 했는데 정확히 어떤 계획인가.



과거 퇴직금 지급금이 계속적으로 적정되었는지

과거 퇴직금 지급금이 계속적으로 적정되었다. 약 45% 정도 있었지만 지금은 권장할 수준이 없다. 조기정년을 하면 학생들의 등록금에 손을 대야 한다. 지금은 학교발전에 쓸 돈도 모자란다. 별도의 기금이 생기기 않는 한 조기정년은 어렵다. 솔직히 밖에서 아직 마땅치 않다. 우선 퇴직금 관련 전문가를 만나 자세한 사정을 파악하겠다.

고졸학생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시는지

현재 우리학교에는 델타케어 학교의 좋은 제도(2+2제도) : 우리학교에 2년 타대학에서 2년을 다녀 양 대학의 학위를 동시에 따는 제도가 있다. 이는 사실 어려운 사업이다. 제도 가 다른 국가사이에 위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문 일이다. 하지만 이 제도를 확대해 나가는데 노력할 것이다. 최상의 학과가 있는 국가와는 교류를 하고 싶다. 또한 현재 협정된 대학과의 협정연맹에도 노력할 것이다.

용인배움터 총학생회는 정개로 인해 학업을 인정받지 못하는 등, 불리하지 않은 문제가 있는데...

학칙대로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내구성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외대는 '최저점'에 비유할 수 있다. 학생들이 공부에 집중하지 못하고 학교 격차를 하고 있다. 이는 슬픈 현실이다. 재임 기간동안 외대의 발전을 위해 일하겠다.

취재 : 정리 김중현 편집장 bpress@korea.com

악력

지난 64년과 67년 서울대 법과대학 및 대학원을 각각 졸업한 안 총장은 미국 플로리다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고 75년부터 우리 학교 교수를 맡아왔으며 기획처장, 대학원장, 부총장, 제5대 총장 등을 역임했다.



추가등록기간안내

- 등록기간**
2002년 9월 9일(월) ~ 2002년 9월 16일(월)까지
- 등록장소**
제일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전국지점
- 등록금액**
등록금 납부 통지서 참조
- 외부입학생은 학생에서 장학금 수령 후 고지서 발급 해 주십시오.**
(과내 또는 외부입학생의 전액등록금도 반드시 은행에서 수납장치를 발급 받아야 함)
- 등록금 영수증은 재발급하지 않으므로 소중히 보관 하십시오.**
(본 영수증은 소액처럼 사형당하여 복제 요청불가능하며, 사용될 수 있음)
- 9월입상 등록대상자 학내안내**
가. 수납신청서 10학점 이상으로 신청한 자 (11학점 이상은 재학생과 동일함)
나. 학생이름(성명)과 고지서번호 기재필요를 받음.
다. 학적과에서 9월입상 등록신청서 받은 후 결과에서 공백을 작성한다.
라. 수납신청서, 영수증, 재발급하지 않은(신)증, 재발급한 외대등록금소통원인서(발급 가능함)
- 안내해 주십시오 : 2000-2학기부터 2년 연속 학내이전에 연속하여 재입금 발급받아야 함.**
가. 국민은행 : http://www.kookmin.co.kr
나. 제일은행 : http://www.kf.co.kr
다. 하나은행 : http://www.hanabank.co.kr

2002. 9. 2

재무처장

서울캠퍼스 예비군 전입 및 전출 신청 안내

2002년도 2학기 대학장관 예비군 전입 및 전출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아래 -

- 전입 신청**
▷ 대상자 : 입학(일반, 편입, 제입학), 복학, 복수전공, 본교학부에서 대학원 입학
▷ 제출 서류(영문 신청)
-예비군 병검보통원서(비상장제외관심 비지)
-학력명등 신고서(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과과 발송)
-등록금 납부 영수증 사본(신청일 및 원적소재지 제외)
▷ 학교 홈페이지(한인사) 신청
학교홈페이지-외교경찰관-비상장제외관심 비지(가)서-예비군대원 신청 비지(가)서
- 전출 신청**
▷ 대상자 : 휴학, 자퇴, 제적, 일반대학 예비군 전입자
▷ 제출 서류 : 학력명등 신고서(학적과 및 각 대학원 교과과 발송)
- 신청 기간 (전입 및 전출)**
▷ 전입 신청기간 : 등록 기간(9. 12 ~ 9. 30)
▷ 추가 등록사에도 신청 가능
▷ 전출 신청기간 : 휴학, 자퇴, 제적 사용발령일
- 기타**
▷ 2002년 전적이 된 자(예비군)에 한해서 예비군대원 신청절차가 용이
▷ 졸업 희망자는 수당통지서 지역 예비군 중에도 일률적으로 신청 필요 없음
▷ 주소 변경사항은 변경 신청
▷ 문의 사항은 학생지원 1층 학생지원팀(상장제외관심 전담전화) 961-4145-6

2002. 8. 1

서울캠퍼스 직장 예비군연대장

장교모집광고

▲ 학사편 모집
○ 모집 신청 일정

구분	모집 공고	서류 접수	시험	합격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일반	9.15~9.12	9.14~9.11	9.11~9.12	9.13~9.12	9.21~12	9.13. 9. 27

○ 자적
-4선제 대학 졸업자(03. 2명)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
-신체 검사 결과 3급 이상인 자
-군사법 제 10조 1항 입영자격을 갖춘 자

▲ 군장교 모집
○ 모집 신청 일정

구분	모집 공고	서류 접수	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일반	9.15~9.12	9.14~9.11	9.11~9.12	9.13~9.12	9.21~12	9.13. 9. 27

○ 자적
-4선제 대학 1, 2학년 재학생
-신체 검사 결과 3급 이상인 자
-신체 검사 결과 3급 이상인 자
-신체 검사 결과 3급 이상인 자

▲ 문학인재 모집
○ 모집 신청 일정

구분	모집 공고	서류 접수	시험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합격자 발표
일반	9.15~9.12	9.14~9.11	9.11~9.12	9.13~9.12	9.21~12	9.13. 9. 27

○ 자적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 미성
-4선제 대학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03. 2명)
-신체 검사 결과 3급 이상인 자

▲ 문학인재
○ 문의 전화 : 학내 행정팀 961-4112
○ 인터넷 : 학내지원센터서 http://armyofficer.co.kr

외대 학 군 단

원하는 수업을 들을 수 있는

마지막 **다** 찬스!

⇒ 수강 신청 변경 기간

- 1. 4학년 9월 2일(월)
- 2. 4학년 9월 3일(화)
- 3. 2학년 9월 4일(수)
- 2. 1학년 9월 5일(목)
- 전학년 9월 6일(금)
- 전학년 9월 9일(월)~13일(금)

⇒ 이용시간

- 서울 : 9시 ~ 오후 5시
- 용인 : 10시 ~ 오후 5시

“구성원 모두가 대우받을 수 있었으면”



김수진 (동유럽·폴란드 교)

제가 입학하자마자 등록금과 같은 많은 대입이 많이 있었는데 새로운 총장님부터는 그런 미안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총장님, 교수, 학생, 직원의 의견을 공청하고 평등하게 반영해 학교를 이끌어주세요. 교수님도 직원 분들도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다 각각의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인배움터의 가장 큰 문제가 교통이라는 건

총장님도 아실거예요. 학교버스를 많이 늘려주세요. 배차시간도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한정된 배차시간에 맞추느라 지역이 되면 용인 배움터는 썰렁~해 진다구요. 그리고 경기대원 고속 직원이어서들은 왜 그리도 불편할까요? 모현~학교간 무료연행 약속도 지켜주지 않고... 우리학교팀 계약은 맺었음데도 그러면 안되지 않아요? 집이 먼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수송인원이 적어서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데 친구나 선배들을 보면 참 안타깝구요. 기숙사를 늘려주셔서 편한학생들이 편하게 학교 다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 기숙사 시설이 많이 열악한데 그것도 개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학교 특수어과는 전공을 살릴 기회가 많지 않다는 게 고민이에요. 총장님도 이번 월드컵처럼 전공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을 때를 놓치지하시고 먼저 바쁘고 나서서 학생들에게 기회를 열어주세요. 총장님도 특수어과의 고집적인 취업문제도 총장님께서 방향을 제시해 줄 거라고 믿고... 공부 열심히 한다면 취업 소망은 아니겠죠?

“용인 발전의 열쇠는 기숙사 증축”



최희락 (언어학과 교수)

총장님께 가장 먼저 부탁 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재정과 인사체리를 분명하게 처리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들은 학교 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두 문제라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결산안 공개록을 보다 놀리고 신입교수 임명 시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용인 배움터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가장 먼저 기숙사의 대폭적인 변화가 필요

어야 합니다. 총장님이 말씀하신 교육, 실용적 측면에서의 기숙사 증축이 이뤄져야 하며, 더 나아가 용인 배움터의 진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건설이 실현되었으면 합니다. 용인배움터의 여러 문제 중 하나인 '학생들이 있는 학교' 특히 겨울과 여름에 심각해지는 '학교 공동화 현상'을 해결하는데도 기숙사가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또한 문화하는 학생들의 기숙사 큰 어려움, 매일 겪는 교통지옥도 기숙사로 인해 어느 정도 해결 될 학생들의 학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수의 입장에서 덧붙이지만 교수의 연구와 논문발표에 투자가 좀 더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인장적인 연구 환경이 아닌 재비를 들여 연구하는 교수의 실정인 안타깝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총장직을 시작하는 총장님의 마음가짐, 이를 미치까지 가져가는 것이야 생각됩니다. 학내 구성원들의 여러 목소리를 수렴하여 그들간의 조화를 꾀하면서 취직시 제 시한 여러 공약들을 초심의 마음으로 계획한 대로 하나 하나 실현하셨으면 합니다.

“외국인 유학생 위한 특별수업 있었으면”



쉬지야 (동양·일본어 교)

기숙사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외국인 유학생들은 혼자서 방을 구해야 하는데, 처음 왔을 때 방을 어떻게 구하는지도 몰랐고요, 주인 아주머니를 상대하는 것도 부담스러웠어요. 학교 공간이 좁아서 기숙사를 만드는 것이 무리인 줄은 알지만 일단 연수생들이 기숙사라도 유학생에게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에 유학을 왔으니 한국어 공부하는 것

은 당연하겠지만, 교양수업의 한국어는 너무 어려워요. 외국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한국어도 공부하고 한국문화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 있었으면 해요. 입학 전에 외국인들이 등록금 납부에 대한 것이나 수강신청 방법 등 외대 학생으로서 필요한 것들을 알려 주는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저는 중국인이니까 중국어로 번역된 서류를 주시면 더 좋겠어요. 또 기숙사가 어렵다면 거주할 곳을 소개받든지 각종 생활 정보도 제공해 주시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있어서 이왕이면 것들을 위한 유학생 서비스센터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외대내의 한국인학생들과 교류할 수 있는 클럽 같은 것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인 학생들에게 외국어를 가르쳐주고 그 학생한테는 한국어를 배우는 방안도 좋을 것 같고 외국인에게 관심 있는 학생들과 친목을 다지고도 싶습니다.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



신승철 (서유럽·독일 연구원)

우리학교는 외국어대학의 특색을 찾아야 한다. 현재 우리학교는 정체를 찾지 못하고 있다. 학교 발전을 위한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을 고민하지 않고 과거에 누렸던 기록에만 안주하려 했다. 이것이 외대가 다른 대학에 비해 뒤떨어지게 한 까닭이다. 이제부터라도 기획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다. 직원의 권한과 책임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학교 행정업무가 지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할 직원들이 있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서는 어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 직원이 그에 걸맞은 권한을 주는 만큼 그에 따르는 책임을 잘하지 못한다. 대신 학교의 권한한 직원이 있다면 적절한 상으로 그를 격려했으면 좋겠다.

각 부처들도 논의를 이끔에만 집착하여 학교 발전에 소홀한 면이 있다. 외대의 발전이라는 명제 하에 각 부처들이 서로 양보·타협하며 큰 틀의 것이 필요하다. 조직에는 다양한 사람이 있다. 이 조직에서는 공통의 목표와 방향으로 화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이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목표와 방향이 제각각이면 능력을 발휘하기 힘들다. 또 한 번 방향을 정하면 일단 추진하는 것이 좋다. 논의만 하다보면 한 발짝도 뚫 수 없다.

“대학원을 연구인력 양성의 장으로”



김동원 (대학원 신장학 박사 학위, 대학원 총학생회 학술국장)

총장선출과정에서 대학원의 연구환경 개선에 관련된 공약이 전혀 없었다. 연구환경 개선은 화성시의 보수, 컴퓨터의 갱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생은 취업률로 판단하지만 대학원생은 연구성과로 판단하지 않아요? 학문의 후속세대인 대학원생들을 위해 박사학위 취득후 해외연수제도 등을 통해 연구수행력의 증진과 활성화에 기여하게끔는 논문작성지

원금을 마련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이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고대에서는 이러한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또한, 조교상태를 파악해 학과 조교로, 연구조교, 실험실조교, 대학원행정조교, 교수개인교동으로 세분화해 할 것이다. 그리고 조교제도가 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는 것이 아닌 지나친 업무 등으로 인해 공부시간이 짧아지는 고압정책에 대한 취향이 바뀌어야 할 것이다. 시간강사의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급여나 관리에 있어서 인정한 틀이 없이 교수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과 평가가 정해진 '강사등록제'와 같은 안정적임 시스템을 필요로 한다. 시간강사는 현재 법적 지위의 모호함과 운영체계의 정무적으로 의료보험 및 각종 연구비 등 조차 전액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이다. 신임총장은 학교발전에 애기 할 때 대학원을 연구 인력 양성의 장으로 보고 같이 연구할 면한다. 이를 위해 구성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해야하며 이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방향을 찾고 추진력있게 진행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말단직원의 말도 귀담아서”



김중선 (용인배움터 교문 근무자)

우리학교는 중국어대학인가? 우리학교는 한국외국어대학인가. '한국' 외국어대학의 정문에는 한국외국어대학교란 명제가 한국어가 아닌 중국어 쪽, 한자로만 적혀있습니다. 정문에서 한자로 근무하는 사립으로서 우리학교의 이름이 한국어 아닌 한자도 적혀 있는 것이 불만스러웠습니다. 정문만해도 그렇습니다. 반면 4개의 자물쇠를 채워야하는 최사울

은 제가 신임한 학교인 외대를 지키는 것이 아닌 마치 담장을 지키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합니다. 현대식으로 제작된 문들이 설치된 학교를 보면 우리학교도 개선할 것은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학교도 꽃이 너무 없습니다. 풍경을 좋게 하자는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꽃은 서로 웃는 낯으로 대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 역할을 합니다. 분관까지 오면 내리는 셔틀버스의 승차장에 비박이 있어도 비오는 날 미리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학생이 비를 두들기고 서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지붕이든 승차장에 있다면 비관상 보기를 줄일 수도 있지만 사람이 많아 기다리는 어쩔만 밑이나 기숙사 일 등 3군데 정도는 교문까지 열어야겠습니다. 요즘처럼 인공적으로 일정한 총장님의 얼굴을 단 면도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제대고 오가는 인사만 했을 뿐입니다. 경비가 이런 건의를 하는 것이 주체파와 뜻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동양인원(시스템) 소속이 적다. 교문에서 일하는 인상이 아주 적다며, 신임총장은 말단직원의 말도 귀담아 듣는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친근한 총장님이 되어 주세요!”



김명운 (서유럽·서아프리카, 용인FBS 동아부장)

용인배움터는 다른 학교에 비해 복지·문화 시설이 많이 열악한 것 같고 학교 앞 거리도 '내국' 라는 느낌이 들지 않는게 사실이에요. 총장님, 학내외적으로 복지·문화시설을 많이 유치해주셨으면 하고요. 해외동문의 자리가 구가 밝아질 수 있게 여러 방안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유복재 (사회·신장학, 06.외대발전학생회추진위원 회칙위원장)

제가 가장하게 해준던 당시 학생의 3주교 수, 학생, 직원 모든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부턴가 계속 하나 있어도 할 학내 구성원들이 여기 자기 위를 지키면서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고요. 외대 내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다 자기 관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세요”



유복재 (사회·신장학, 06.외대발전학생회추진위원 회칙위원장)

제가 가장하게 해준던 당시 학생의 3주교 수, 학생, 직원 모든구성원들이 하나로 뭉쳐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부턴가 계속 하나 있어도 할 학내 구성원들이 여기 자기 위를 지키면서 지금처럼 뿔뿔이 흩어지지 않았고요. 외대 내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구성원이 다 자기 관에 있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군소학과에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병도 (대중학과 교수)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 어느 한 구성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결정방식은 지양해야 한다. 전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정책을 결정해 달라. 용인 교수를 위해 인문·자연·사회·공과대학이 있다. 실제로 문과대학이 학과별(문학·교육·사범)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인문·자연·사회·공과대학에 지원이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제도 컴퓨터가 지급되지 않는다. 이 컴퓨터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용인교수들이 연구에 몰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용인배움터는 어떤 시간에 학교가 텅 빌다. 학교 공동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기숙사를 건립했으면 좋겠다. 학생기숙사 뿐만 아니라 교수 기숙사까지 건립하면 더 좋을 것이다. 교수들이 시간에 쫓기지 않고 학생과 대화하고 만날 시간을 좀 더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용인배움터에 있는 중화학과에 '전임교수'를 추천해서 용인 나라의 발전을 꾀해야 하겠다. 총장께서 말한 대로 외대에 이 할 수 있는 특화된 대학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외대뿐만 있는 군소 외국어학과에 대한 지원이 많이 필요해요. 실제로도 당장이라도 군소 외국어학과에 학과별(문학·교육·사범)로 구성되어 있는데도 인문·자연·사회·공과대학에 지원이 많이 이뤄지지 않는다.



4,5 2002년 9월 2일 81호

주제 기획

▽ 80년 동안 외대보에서 기자생활을 하신 김수진 기자님을 만나다



외대학보야. 한번 더 날자, 날자꾸나

전통에 연연하지 않고 '확' 바뀌어야 독자들이 읽는다

기자가 없다. 학생들은 요즘 '뜬다'는 곳에만 몰두한다. 신문 만들기가 참 버겁다. 주간이 월간되고 12면이 8면이 되고 다시 4면이 된다. 그래서 연명한다. 우리내 신문들은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성과'를 소중하게 다루려한다. 그래서 변화를 두려워한다. 눈치를 본다. 행여나 지껄기 긴 국민 언어만큼까 가슴 졸인다. 기자들의 희생이 시작된다. 국부장은 제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후배들은 선배들로부터 비전을 찾지 못한다. 이렇다 시적된다. 몇몇 순진하고 착한 기자들은 헌신적으로 일한다. 그리고 연명한다. 미래는 보이지 않는다. 기획만 보면 대학지분은 차고 들어온다. 처음에는 기자수가 적다고 공간을 줄인다. 예산을 줄인다. 신문의 입지는 줄어든다. 뒤늦게 '투쟁'을 외치다 이렇게 전사한다?

학보사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신문 만들기가 참 버겁다'. 주간 12면이었던 학보를 작년 2학기엔 한시적으로 격주 12면으로 조정하면서 나온 외대학보 내부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12면을 만들기엔 기자수가 부족하다. 적은 수로 신문을 만들다 보니 신문 만드는 재미를 느끼는 자는 없고 많은 실무량에 쫓겨가는 기자들이 대부분이었다. 이로 인해 신문지면에는 위용만만 기사는 없어지고 경직되고 활기가 없는 기사들이 가득했다... (후략)"

올해부터 외대학보는 주간 8면으로 '감편'됐다. 그나마 업무량이 줄어든다고 불구하고 지난 1학기 외대학보기자들은 매주 신문발행에 허덕였다. "일주일에 두 번 밤을 새우는 일은 기본"(외대학보 편집장 김경원, 정보산업공과대·디지털정보 01)이고 취재때문에 학내수업을 빠지게 되는 일도 다반사였다. 기자들의 희생이 시작될 것이다.

문 내는 것만 해도 대단하다. 그래서 돌파구를 찾고 있는가? (김수진 전 경성대신문사 편집국장, 같은 글)

외대학보의 자체적인 상황이 이렇게 열악해진 것은 외대학보가 더 이상 옛날처럼 학내 구성원들과 함께 호흡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학보는 용인배움터 총학생회장 윤승민(동유럽·헝가리어 95)은의 말대로 "술 마실 때 까는 주(酒)간지"일 뿐이다. 학보가 직접 놓아주어도 보지 않는다"며 고개를 흔들었다. 외대인의 관심에서 멀어진 외대학보는 자연스레 내부 상황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한 김상열 교수(스칸디나비아어과)는 "지금 학보" 독자들을 가르치겠다는 생각을 갖고 다지고자 한다. 소위 '운동권'적 시각으로만 사회를 바라보니 공감대가 있을 수 없다. 요즘 대학생들의 변화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독자들과 유리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전하며 "가장 대학인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인문을 죽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대신문들은 제호만 빼고 다 바뀌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변화를 주장하는 그에게 구체적인 방향을 묻자 "논조가 한쪽으로 편향되었을 경우 독자들이 거부감을 갖는다. 일례로 통일에 대한 기사만 올 경우 독자들이 식상함을 느끼기 같은 소재를 되풀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충고한다.

대인들이 외대학보에 비하는 점과 일치했다. "지난 학기 재일 기억에 남는 기사가 대중적이지 않은 학보의 사진특집면이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우리친구를 애기가 싫었다 때문이다"는 김수진언의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학보에 많이 담았으면 좋겠다'는 충고를 김상열 교수의 "학보의 기사는 독자대중의 눈높이에서 출발해야 한다. 너무 앞서나가지 말고 독자들과 보폭을 맞춰라"는 제언을 듣고 있는 외대학보.

외대학보 연명하다 죽어버려라?

위는 작년 6월,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 홈페이지에 올린 당시 부산 경성대신문사 편집국장 김수진씨의 글 '대학신문, 연명하다가 죽어버려라'라는 글이다. 대학신문에 대해 도발적인 문제제기를 한 이 글은 당시 전대기럼 내부에서 한동안 파장을 일으켰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 글은 마치 외대학보 기자가 쓴 것처럼 외대학보의 상황과 정황이 일치한다. 일단 '기자가 없다'. 현재 외대학보 기자들은 서울배움터 기자 1명과 용인배움터 기자 3명이 전부다. 불과 4명의 학생기자들이 매 주마다 8면의 신문을 만드는 것이다. '전체 기자가 30명이 넘었고 수습기자를 모집할 때는 한 김의실을 빌려서 시험을 봤다'는 학보선배들의 추억은 그야말로 '호랑이 담배배던 시절'에 있었던 일이다. 더구나 현재 학보사내 남아있는 4명의 기자들은 모두 01학번(2학년)으로 올해 1학기에 외대학보 수습기자로 지원한 5명의 세내기들은 반박이 시작되기 전 모두

대학신문은 열려있다? 진보적이다? 우습다. 머리는 트여있으나 행동이 뒷받침해주지 못한다. 참 까딱한 조직을 유지해왔다. 나름대로 '질남' 기자들의 선전력을 과시했다. 무식한 면들로 등장했다. 읽지도 않는 기사를 생산하고 재생산한다. 신문은 이미 죽은 기사들로 가득 차있다. 구성원들은 읽지 않는다. "신문이 무슨 '짜리사'냐"라고 말하기도 한다. 물론 기자가 없다. 솔직히 그 인력으로

가장 대학인문을 아끼는 사람들이 오히려 대학인문을 죽이고 있다.

외대인들에게 학보가 읽히지 않는 이유를 들는 일은 어렵지 않았다. 김보성(동유럽, 폴란드어 00)군은 "보통 학생들은 학보에 관심이 없다. 읽고 싶은 게 없으니까"라고 전했다.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정보가 없다는 게 무관심의 이유라는 것. 흥미성에 대한 불만도 표출했다. 서울배움터에서 만난 한 새내기 여학생은 "흥미있는 기사가 없다"며 짧게 대답했고 김수진(동유럽, 폴란드어 02)양도 "너무 진지하고 어두운 내용만 실린다"며 "신문이란 매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생겼는데 재미가 없으면 안 읽는 것은 당연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학보가 계몽주의에 빠져있다는 비판도 높다. 99년부터 2학기동안 외대학보 주간교수를 역임

시대의 흐름을 외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필요한 것은 변화다. 이렇다 목적 망설이게 변하기 때문이다. 대학신문은 더 이상 기자들만의 것이 아니다. 대학 구성원 모두의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모른다. 등록금으로 유지되는 신문사라는 공간의 고마움을 모른다. 구성원은 변화를 원한다. (같은 글)

"위의 글을 쓴 경성대 김수진씨는 '이제라도 글을 쓸 당시의 소신을 변한 게 없다'고 전했다. '예전의 문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대부분

"읽고 재미있는 기사, 소재발달을 학보로 집중시켜서 해당대학의 학생들이 이목을 끌 수 있는 기사를 써야 한다"는 그의 말은 많은 외

양창모 기자 hufsan@harmail.net

Unique & Best

도전하는 외대인, 그들이 아름답다!

한국의외국어대학교
HANKYONG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한글교과 소개하기
● 2002년 1학기부터 11월 15일까지
● 2002년 2학기부터 11월 15일까지

한글교과 소개하기
● 2002년 1학기부터 11월 15일까지
● 2002년 2학기부터 11월 15일까지

2003학년도 수시 2학기 신입생 모집

1. 전형 일정 및 모집인원

구분	구분(모집인원)	일시	장소
입학 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	2002. 9. 1(일) ~ 9. 6(금) 17:00	www.apply114.com www.uwuy.com
	제출서류 접수	2002. 9. 2(월) ~ 9. 11(수) 09:00 - 17:00	서울캠퍼스 입학처 입학관리과
전형 일	담당교사추천 특별전형 (414명)	서울캠퍼스 : 2002. 10. 4(금) 용인캠퍼스 : 2002. 10. 5(토)	서울캠퍼스 지정장소
	TOEFL, TOEIC 성적우수자 특별전형 (244명)		
	외국어강사대회 입상자 특별전형 (30명)		
	FLEX 성적우수자 특별전형 (49명)		
합격자 발표	지역우대 특별전형 (26명)	2002. 9. 28(토)	본 대학교 계사관 본 대학교 홈페이지 (www.hufs.ac.kr)
	장기근속교사 자녀 특별전형 (37명)		
	벤처기업경영자 특별전형 (5명)		
	자기추천자 특별전형 (5명)		
입학사상 표	담당교사추천 특별전형	1단계 : 2002. 9. 24(화) 14:00 본 대학교 홈페이지	본 대학교 홈페이지 (www.hufs.ac.kr)
	기타전형	2002. 10. 15(화) 14:00	

* 전형별 모집단위의 모집인원은 입학처 홈페이지 참조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 모집

- 입학원서 교부 : 2002. 8. 21(수) ~ 10. 4(금)
- 원서 및 서류접수(수시) : 2002. 9. 30(월) ~ 10. 4(금)
- (* 원서 모집 지원 희망자는 위 기간에 반드시 서류접수 해야 함)
- 입학전형일 : 2002. 11. 1(토)

서울캠퍼스 입학관리과 02-961-4471-3
용인캠퍼스 교무연구지원과 031-330-4023-74

경북 변화와 개혁의 외대건설 제7대 안병만 총장 취임

세계를 호흡하는 기승
한국외국어대학교
http://www.hufs.ac.kr



외대학보,
죽거나 혹은 편하게나

외대학보 특별취재팀

‘외대’ 학보야! ‘우리’ 얘기 좀 담아줘~

외대학보는 이따로 가야 하는가?
평소 학보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있는 교수, 직원, 학생 5인의 작업회
를 통해 그 답을 찾아냈다.

편집자 주
일시 : 8월 28일(수)



반병욱
국립외대대학 교수
2001년 외대학보 주간교수

사회자: 더 나은 외대학보를 위한 토론을
위해 이렇게 모여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외대학보의 독자로서 평소 느꼈던 외대
학보는 어떠했습니까?

정대진: 저는 새내기 시절 경기대 학
보에 다니는 친구에 의해 외대학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그전에는 학
보에 별 다른 관심도 없다가 친구 나서
외대학보의 특징을 듣고부터 학보를
유심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의 외
대학보는 당시의 신문보다 사진이나 편집
등에서 많은 부분 세련되어졌지만
최근 들어 제가 대학신문의 중요한 역
할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학술적 측면은
점점 소홀한 지는 건 아닌가 하는 걱정
이 듭니다.

김국현(이하 김): 외대학보는 신문
에서 반드시 세워야 할 조가 불명확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어떤 장점이
되는 사이에 대해 명확한 주장이 없는
이도 저도 아닌 상태의 기사들이 많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정해석: 외대학보는 학내 사안에 대
한 비판과 견제의 기능을 강했지만 학
술적이고 분석적이며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는 제대로 부응하지는 못 하는

것 같다. 80년대 거대 담론에 아직도
빠져있다는 느낌이 든다.

박강수(이하 박): 다양한 학내 연안
이나 정보를 주는 것은 외대학보의 강
점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모
습처럼 학보도 문학, 철학등의 분야에
조금은 소홀한 것 같습니다.

반병욱(이하 반):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외대학보는 과도기가 아닌가 생각
합니다. 시대가 변했는데 아직 적응이
덜된, 비유하자면 90년대 들어서 진보
색채가 적었던 과거와 비슷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사회자: 학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습
니다. 매주 발행되는 8면 속에서 학내, 학외
사안을 적절하게 추려내는 작업이 부족했
던 것 같습니다.

박: 제가 볼 때는 학내, 학외가 아니
라 다루는 그 시간 자체가 중요한가,
아니가 혹은 실용적인가 아닌가에 대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를 들어 SOFA나, 코카콜라와 같이 사
회적 사안이라도 직결하게 다루 주는
것이 학보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반: 지도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개인
적으로 주간교수를 맡았을 때 내가 가
장 재미있었던 것은 문화인이었습니다.
반면에 보도편을 보면 학내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약어도 많고, 딱딱한 논조로
만 이루어져 오히려 흥미를 떨어뜨리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회자: 학보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
어보았습니다.



박강수
서원길, 불어 조, 사범대학, 동아리

있습니다. 학내, 학외 사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접근방식이 중요하다는 말씀이
신데요. 여러분이 외대학보 기사가 되었다
는 가정하에 한번 다루보고 싶은 것은 주
제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정대진: 대학이란 학문의 타진이 전
반적으로 위기인 상태에서 신문이 되고



정해석
입학과 직전, 97년 1학기 외대신문사 주임

안 읽히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대학의 위기를 해결 할 수 있는 동아리
를 제시 할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
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곳곳이 우르르
너지는 가운데 그 해결점을 제시하
야 할 것인데 학내 여론이라 생각합니다. 그
리고 학내여론이 대학의 위기를 논하고
그 해결책을 찾을 때, 대학인문도 어
름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요.

정해석: 지금의 학보는 외대라는 공
동체에 대해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외
대 문화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 내놓는
데에도 고민을 해야 할거예요. 즉 콘
텐츠에서 외대에 집중하고 모든 구성원
나아가 졸업생까지 놓치지 않는 세심함
도 보여야 합니다.

반: 기억을 떠올려 과거 기사들을 보
면 학내사안에 관한 기사들은 자신의
글이란 느낌이 들고 글도 매끄러우며
재미있었습니다. 그러나 외부기사를 보
면 약간 소화가 되지 않았나요? 우선
기자들이 자신이 겪은 학내, 외
대 이야기로 써보는 것은 어떨런지, 그
렇게 작은 소재 하나에서 외대학보만의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정해석: 외대학보의 기사들을 살펴보
면 대다수가 고발 형식의 기사들입니
다. 하지만 전체를 본다면 지난과 처
방, 나아가서 피드백이 가능한 기사를
생신하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차분한
기획기사들을 준비해보면 어떨까요?

사회자: 여러분이 보시기에 외대학보의 가
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김: 학교예가를 해도 우리하고 얘
기 아닌 것 같아요. 대부분은 관점에서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집니다. 자신과
가까우면 관심이 줄리가 마련인데 그런
면이 부족한 것이 아닐까요.

정대진: 실질적인 내용이 없고 자기
얘기가 많아요. 자기애가 있는데 손
이 안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요. 그리
고 덧붙여 외대 대학원에는 따로 제작
되는 대학원 신문이 없습니다. 즉 재학
원을 대안해 줄 언론이 없는 셈이지요.
그런 점에서 우리들은 학보에 기대를
걸지만 사실 좀 소외된다는 느낌이
예요. 이런 면에서 학보가 모두를 아우
르기 위해서는 많은 부분 기자의 역할이
요구되는 것 같으며 이를 기자들이 과
연 해줄 수 있을꺼하는 고민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반: 다른 예기지만 기자들이 위기가
생각하는 것, 또는 위기가 찾아 온 것
은 우선 학보 기자수가 부족 한 것이
큰 것 같아요. 이 점에서 기자들 문
제 등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야합
니다. 열악한 환경이 점점 더 학보의 위
기를 가중시키고 있어요. 적은 기사 수
에 많은 기사 분량...



정대진
외대대학원 입학 심사 2명기



이런 점들 역시 외대학보의 계속되는
문제점이지요.

정해석: 고대신문들 잘 되는 학보를
살펴보면 우선 기자수가 많습니다. 한
면에 2,3명의 기사가 붙어 한 쪽지에
대해 보다 더 전문적인 기사를 만들어
내고 결국은 좋은 신문이 만들어져
요. 저도 기자의 수가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
의합니다.

사회자: 기자수의 부족이 기자의 질과 전문
성의 후퇴라는 현상을 만들었다고 말씀하
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생
각해보지요.

반: 해결책은 대학원생, 교수들과 같
은 학내의 전문가 필진을 적극 활용하
는 것입니다. 편집권에 대한 고민도 해
야 하지만 모든 기사를 기자들이 해
려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외부 전문
필진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김: 대학생들이 예전보다는 이론과
인문학부문에 약점을 가진 것 같습
니다. 학보는 대학생이란 입장에서 연
하나 여러 현상들을 기록해 있게 다가
가는 맛도 필요하지 않은지요.

정해석: 또한 어느 분야에 대한 분석
력, 기획력 있는 기사도 함께 생산해
내야 합니다.

박: 홍보적 측면도 강조해야 할 것
입니다. 학보에는 특별한 사람이 글
을 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요. 기사
저도 기자의 수가 지금의 위기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는 의견에 어느 정도 동
의합니다.

사회자: 마지막으로 외대학보가 '읽히는 신
문'으로 나아가기 위해 하고 한 마디씩 부
탁드립니다.



김국현
사회, 신장 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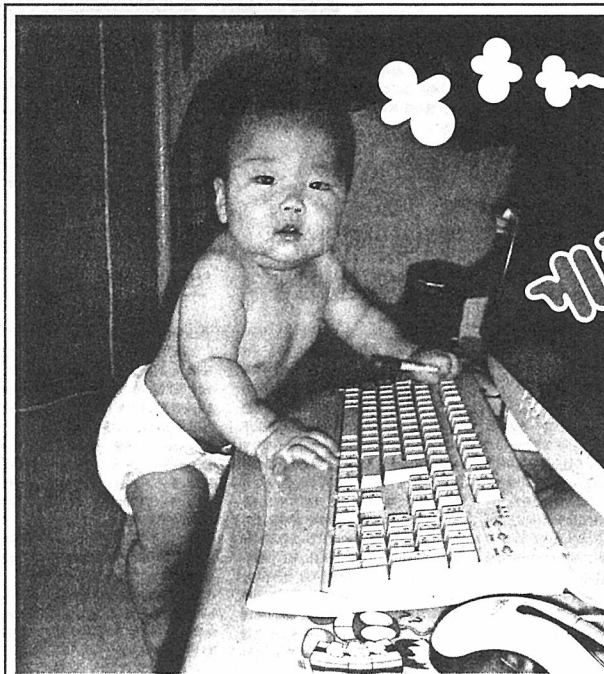
박: '운동권 신문'이라는 이미지를
이제는 버리고 독특하게, 재미있고 약
간은 선정적으로 만드는 것도 필요합
니다. 고정필자를 뽑는 식으로 독자층
도 넓혀 갔으면 해요.

반: 현재 기자들이 외대학보를 다 만
들어야 한다고 생각 말고 여러 구성원
들에게 참여기회를 줘야 해요. 무지한
대중을 이끌어야 한다는 선도성도 버려
야 하고요. 과거의 전통에 연연하지 말
고 과감히 실험을 개입해야 합니다.

정해석: 외대가족, 동문이라는 생각
이 들 수 있는 지면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학생·직원을 모두 아
우르는, 나아가서는 동문들까지 학교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촉매제로써의 역
할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대진: 민주·민간주 대결구도도 계
진 상황에서 계속 그 구도에 침착해 있
으면 안돼요. 대학신문만이 할 수 있는
예기를 해야 해요. 학보가 기성인문
을 따라 갈수는 없지만 연구하는 대학에서
만 할 수 있는 방식과 인력들을 잘 이
용할 수 있어요. 그것이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정리 김중원 기자



나두 '인터넷 외대학보' 제1라 기자라구요!!

서투고 어눌하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시작한 아기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에 서투고 어려워하는 당신
어려워 마세요
부끄러워 마세요.
망설이지도 마세요.

당신이 참여하는 한 누구나 기자가 되고
모든 것은 기사가 됩니다.
내가 만드는 인터넷 외대학보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내가 만든 외대어'!
www.ihufsan.com

ihufsan
내가 만드는 인터넷외대학보

“왜곡된 부분 수정하는 풍토 만들 것”

제 10대 노동조합지부장 이정철씨를 만나



10대 노조지부장에 당선된 소감은?
 나를 때 상당히 두려워한 부분이 있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잘하고 싶고 나중에 좋은 평가를 받고 싶었다. 그렇게 하기위해서 자신감이 필요했다. 당선이 되고나니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걸 다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바꿔갈 것이다. 미흡하지만 하지만 간부들이 잘 구성됐고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같이 의논해 가면서 열심히 할 생각이다.

로 조금씩 애곡돼 있는 부분들이 있다. 예를 들면,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있다. 똑같은 대졸학력을 갖고 있는데 여자는 14호봉, 남자는 16호봉으로 시작하는 단일호봉규정(89년)에서의 남녀차별 시정을 요구했다.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풍토를 만들고 싶다. 10대에서 최대한 다 끝내도록 노력하고 11대, 12대가 이어가도록 하겠다. 원칙은 지금 현상황에서 잘못된 것을 수정하는 것이다.

지난 해 노조 집행부를 평가한다면?
 작년 때 수석지부장이었는데 돌아보면 참 미흡한 점이 많았다. 조합내부에서 집행부의 일이 100%공유까지는 힘들어도 여론수렴을 잘 했어야 했는데, 잘 되지 않았다. 지금도 속내이다. 총학생회와 마찬가지로 조합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이 많지 않다. 조합이 나아갈 길이 정확히 전달이 안된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런 문제를 소식지를 통해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자주 사람들 만나서 찾아다니며 10대에서도 계속 고민해 나갈 것이다.

임기 내에 이것만은 꼭 해야겠다 라고 하는 것은?
 복지 등 모든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학교측과의 협상이 인사위협의 문제로 해결되지 않았던데
 보통 6월정도면 임금협상이 끝나야하는데, 총장이 바뀌고 노조지부장도 바뀌는 바람에 아직까지 협상이 끝나지 않았고, 하지만 총장과의 면담 때 가능한 빨리 마무리짓기로 합의는 보았다.

인사위원회의 관련해서는 학교측이 5:4(학교:노조)에서 6:4로 수정하겠다고 했다. 이유는 2/3이상 참석을 해야 위원회가 성립된데, 노조측에서 참여를 안하면 위원회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노조가 완전히 배제되더라도 합리적인 인사가 이루어 지지만 하면 된다. 하지만 많은 부분 근거 없는 승진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참석하지 않

았다.

신임총장은 취임직후에 재단과 관련된 3가지 위원회(경영회, 국합회, 재단경영위원회)와 제도경비 특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이 위원회들에 대한 전망과 평가

공정적으로 바라본다. 정총장은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았다. 시도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노력을 하고 있는 것과 지원, 학생, 교수가 참여해서 논의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결정은 못 본다고 하더라도 재단의 형태라면 앞으로의 방향, 지금과 달리 나머지는 부분일 것이니 할 것이다. 전체조건은 구성원들의 합의가 있는 것이다. 위원회를 부정적인 시각보다 여러가지로 시도를 하고있고 구성원의 참여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위원회의 구성방향을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지금 3가지 말고 다른 것이 있다면 또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화합이 만들어지면서 저분자는 훨씬 나은, 실제로 한 의견이 합의가 됐을 때 실현여부는 그 다음 문제이다. 충분히 해 볼만한 가치있다. 뭐가 더 가능성인지 판단할 수 없다. 상황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올해 초 만들어진 한 학기 동안 운영된 등록금회계정리위원회에 대한 생각은

등록금회계정리위원회를 최선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위상이 예산을 심의, 조정해서 책정한다는 것에 대해 회의적이지만 나도 예산에 대해 문화이기에 때문에 예산을 검토해서 내 의견 반영시키기는 어렵고, 학교측위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등록금회계정리위원회의 존재조건에 심의, 조정한다. 그것조차 안되면 어렵다. 결국 학교와 학생의 대립구조로만 갈 것이다. 등록금에서 우리학교 예산부분에 대해 전문가는 아니지만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좋았다. 하지만 전문성부족에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지난번과 같은 진행방식으로 서로 상대만 밟을 것, 개선할 여지가 있다.

차별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시점에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고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는 풍토를 만들고 싶다.

신임 안병만 총장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전에 총장직 진행한 것으로 지금을 판단 할 수는 없다. 안병만 총장의 공약 모두가 정확하고 좋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일단은 나름대로 구성원들의 합의를 도출해 내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다. 지난번 면담시 구성원간의 화합을 중시한다고 했고 화합은 왜대 발전의 가장 기본이 되는 토양이 될 수 있다. 집안에서도 불만이 없어야만 회복할 수 없다. 경

우에 따라 조인도하고 비판도 해나구면 추진력있는 것이라 기대한다. 방향하게 볼 것은 보고 훼손된 부분 치유하는데 능력이 기여할 수 있다고 본다.

한계 의대의 직결중 조합원은 2/3정도인데 비조합원과 조합원과의 거리를 좁히기위한 방안은?

비조합원이라도 노조의 방향에 대해 문제를 느껴 비판을 하거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노조사무실에 와서 얘기해 주었으면 한다. 조합은 친목단기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이 들으면 방향을 수정해 나갈 것이고 움직이지 않다면 실패하고 얘기해야 할 것이다. 언제든지 와서 얘기했으면 좋겠고 전화를 하면 직접 사들이든, 용인이든 찾아가겠다.

안병만 총장의 공약 중 직결제고유에 있던데 이에 대한 노조의 생각은

공정적으로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내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시간배우기거나 일방적인 교육은 안된다. 변화의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교육이 이뤄져야한다. 지금까지의 직원을 상대로 한 교육은 상당히 회의적이였다.

교수·학생들 다른 학생구성원과의 연대를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학교발전을 위해 학교 구성원의 화합은 필수적이다. 어떠한 방법이든지 다른 구성원과의 연대부분에서는 고민을 많이하고 노력할 것이다. 교합이나 총학생회에서도 의견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방법마다 연대할 수 있다. 총학생회와 학생자치회간의 긴밀한 협력을 갖고서 재단합력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만나지 못하고 있다. 교합하고도 언제든지 간담회를 갖게 생각하고 있다.

위에 노조의 지부장으로서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이 의미 있는가?

우리는 민주노총연합의 단원노조다. 지난 선거때 전국대학노조 지부장(이주대), 수석위원장(외대), 사무처장(삼지대) 3명이 1팀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30일(금)부터 31일(토)까지 대담회에서 취임식이 진행되며 새집행부가 9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외부와의 연계도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원래는 각 지부에서 단체협약을 체결 할때도 이사장과 대외노조위원장이라는 것이 지부장이 하는 것이 아니다. 바뀐 것은 고민하지 않는데, 과연 능력이 되는가 고민된다.

학부독자에게 한마디 한다면?

(웃음)학부나 나오면 제일 관심 많은 사람은 학생관련 부서에서 일하는 직원이다. 오로지 일반 학생들은 제대로 인보는 것 같다. 우리학교 일이 나가 애정을 갖고 바꾸었으면하는 아쉬움이 있다. 학부도 경우에 따라 계속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 경향이 있는데 대학생들이 가볍게 볼 수 있는 것도 다뤄줬으면 한다.

취재·정리 권경우 기자 tingyu@hanmail.net
 김민정 기자 miksophia@hanmail.net

사설

본보위기가... 독자들의 관심질설

서울 한명, 용인 세명, 홍 내명이 이번 학기 외대학보를 만들어야 할 한명 독자였다. 지난 학기도 이와 비슷한 수의 기자들이 매우 심문을 만들어 독자를 만났다. 한때 이번 개간호를 읽고 있는 독자들은 의아해 할 것이다. 학내, 학외에서 일어난 사건이나 사람들을 신문지면에 담아야 할 기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로 지면의 반가람을 할애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자들이 신문사가 말해가고 있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지만 유심히 봐주길 바란다. “기자들이 왜 자기 얼굴에 공개적으로 참을 받고 있는가?”

본문으로 돌아보면, 본보 기자들은 ‘외대학보는 위기가 아니라’라는 것을 질박하게 외치고 있다. ‘마지막 일세’라는 소설 속에 하나 남은 나뭇잎은 바라보던 소녀를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한명 기자들은 외대학보사가 나뭇잎을 바라보는 소녀가 아니라 하나 남은 나뭇잎에 비유하는 것에 서슴치 않는다. 본보 기자들의 부속현상은 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됐다. 인원수 부족은 비단 본보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영자신문 Argus, 교지, FBS방송국도 각 사마다 그 정도가 다를 뿐 일관난에 허덕이고 있다. 본보기자들이 외대학보가 바뀔 것에 선 원안집단을 나름대로 진정하고 있다. 하지만 그 원안이 복합적으로 형성되어 있기에 대안편을 위해 해고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2000년대 초반 학내의 공동체문화보다 개인주의 문화가 더욱 팽배하다. 대부분의 동아리나 학회가 고민하고 있듯 이 현실의 벽은 만만치 않다. 또한 외대 위상 자체가 흔들리는 것 역시 하나의 원인 요소이다. 지난 외대의 명성을 듣고 입학한 신입생 중 많은 수가 학교시설과 교육역량, 졸업 후 진로 등에서 실망하여 외대를 떠나고 있다. 일례로 지난 학기 수습기자들 중 대부분이 다른 학교로 가기 위해 학보사를 나왔다.

하지만 좀 더 본질적인 원인은 학보사 내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본보’기사는 독자들을 가르칠려고만 든다. ‘학보는 운동권 대변지이다’, ‘학보는 어렵고 딱딱하고 재미가 없다’ 이는 학보사가 최근 몇 년 간 지적받은 내용이다. ‘운동권이나·비운동권이나’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으로 신문사의 독자의 거리를 좁히기엔 역부족이다. 학보가 좀 더 많은 외대인들의 손에 들려 있지 못한 원인은 외대학보의 독자층인 학생, 교수, 직원 등 학원 3주체들이 겪는 부담감을 적극 풀고자 그들의 관심사에도 더욱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여 근본원인이었다. 본보 기자들이 이를 인정하고 자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지금 기자들이 자기 얼굴에 참을 받고 있는 것은 독자와 함께 대안을 만들어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이다. 기자들은 독자들의 애정과 관심을 받고 있다. 마지막 일세를 바라보 주는 소녀와 같은 독자들이 많이있을 하는 바람으로 기자들이 독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애정공세를 하며 힘차게 이번 학기 개간호를 시작한다.

안타깝 <1>
공감 선택



하나가 되는 철문

가로 7.32미터, 세로 2.44미터
 이 사각의 철문에서 하나 된 우리를 보았습니다
 하나 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뜨거운 열정과 사랑으로 불기능을 없애 나라, 우리 대한민국
 이제, 하나 된 우리의 힘이
 탄탄한 한국경제로 메아리칠 차례입니다
 세계축구 4강으로 이루어낸 대한민국의 꿈-
 세계 1강의 철강기업으로 포스코를 지켜나가겠습니다



